

# 원희룡 장관, 운송참여 화물차주 만나 “좋은 결단에 감사”

- 포스코 포항제철소 방문, 수송 현황 점검 및 운송참여 화물차주 독려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(수) 오전 8시 30분,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·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.
  - 원 장관은 “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,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, 철강의 경우 아직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”이라고 하면서,
  - “철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출하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송에 동참해주시는 화물차주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”고 밝혔다.
- 이어 원 장관은 여전히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“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”는 뜻을 전하며, “먼저 산업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면서 정당하게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  - 현장에서 원 장관은 화물차주의 업무개시명령 확대 질문에 대해 “업무개시명령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산업 피해와 운송 복구현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, 당장 내일이라도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”라고 설명하였다.

2022. 12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